

세계 최대 베이징 다싱공항 개항

인천공항 2배, 연간 4500만명 수송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다싱공항(北京大兴国际机场)이 지난 25일 정식 개항했다. 평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간 4500만명의 여행객들을 수송할 예정이며 66개의 항공사들이 공항에 입주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및 교통, 부대시설을 포함해 4500억 위안(75조 7000억원)이 투자된 다싱국제공항은 베이징 서우두공항(首都机场)과 함께 중국으로 통하는 새로

운 관문이 될 전망이다. 터미널은 날개를 편 봉황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다싱공항은 면적이 140만㎡로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이다. 이는 인천공항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공항 위치는 베이징 다싱구(北京市大兴区)와 허베이성 랑팡시 광양구(河北省廊坊市广阳区) 사이에 있으며 천안문 광장과는 직선거리로 46km에 달한다.

다싱공항은 40여개 '세계 제일' 또는 '중국 제일'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으며,

기술특히 103개가 사용되었다. 국산화율이 98%에 달해 명실상부 중국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공항 내부는 'C'자형 기둥을 사용해 시야가 탁 트여 시원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또 세계 최초로 두 개의 도착장과 두 개의 출발장을 갖춘 공항이다. 다싱공항 터미널 지하에는 전철, 버스 등의 종합환승센터가 있고 도심과는 최고시속 160km의 전철로 18분 만에 연결된다.

가



지상 낙원 '구채구' 2년 만에 재개방

27일부터 4곳 시범개방

지진, 산사태 등으로 지난 2년간 잠정 폐쇄된 '인간 세계의 선경(仙境)' 주자이거우(九寨沟·구채구)가 오는 27일 재개방한다. 23일 평파이신문(澎湃新闻)은 중국 쓰촨성 유명 관광지 주자이거우 풍경구가 2년간의 복원 작업을 마치고 오는 27일부터 일부 관광 구역을 시범개방한다고 전했다.

주자이거우관리국 공고에 따르면, 시범개방 구역은 자루거우(扎如沟)의 자루스(扎如寺), 수정거우(树正沟, 휘화하이 제외), 르저거우(日则沟, 뤼르랑부터 우화하이 일대까지), 저차와거우(则查沟) 4곳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다.

관광 구역 복원 상황에 따라 입장 관광객은 하루 최대 5000명으로 제한된

다. 또 개인 관광객은 입장할 수 없고 여행사 패키지 관광객만 입장할 수 있다.

입장료는 성수기(4월 1일~11월 15일) 169위안, 비수기(11월 16일~3월 31일) 80위안으로 책정됐다. 관광차 이용료는 각각 인당 90위안, 80위안이다.

입장료 구매 시에는 반드시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하루 인당 1장의 티켓만 구매할 수 있으며 풍경구에는 별도의 매표소가 없어 반드시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중국 황금 연휴 기간인 국경절을 앞두고 주자이거우 재개방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여행사들은 줄줄이 관련 여행 상품을 내놓았다. 현재 온라인 여행사 뤼마마(驴妈妈)에 나온 주자이거우 패키지 상품은 이미 수십 건을 넘어섰다. 이중 9월 말, 국경절 황금 연휴 기간에 출발하는 상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携程)에서 나온 '청두+주자이거우+황룡(黄龙)+뽤지양옌(都江堰)' 26일 출발, 6일 패키지 상품은 이미 954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뤼마마 브랜드발전팀 리추옌(李秋妍) 책임자는 "주자이거우는 여전히 관광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관광지로 재개방 소식이 알려진 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번 개방 시기가 마침 국경절과 겹쳐 연휴 기간 주자이거우를 찾으려는 관광객 수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국경절 주삼각 고속도로 가장 붐빈다

10월 1일 오전 9시~16시까지 가장 혼잡

올해 국경절 연휴 전국 고속도로 상황에 대한 예측 보고서가 나왔다. 26일 교통운송부 도로망센터에서는 '2019년 국경절 연휴 전국 고속도로 예측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연휴 동안 교통량이 전년 동기대비 약 5~7%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평파이신문(澎湃新闻)이 전했다. 주삼각(珠三角), 장삼각(长三角) 등으로 향하는 차량이 많아 해당 방향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2019년 국경절 연휴는 10월 1일~10월 7일로 7인승 이하의 승용차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적용기간은 10월 1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에는 거의 같은 시기에 나들이를 떠나지만 돌아오는 시기는 상이한 특징을 보일 전망이다. 국경절 연휴 전 날인 9월 30일부터 자동차 통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전 9시~밤 12시까지 전국 도로 교통량과 정체가 평균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휴 첫 날인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가 고속도로 정체가 예상된다. 국경절 열병식을 관람하고 나서 움직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오후부터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0월 2일~4일에는 정체가 완화되고 5일~7일에는 단거리 여행객과 일부 귀성객이 몰리겠지만 10월 1일보다는 덜 혼잡할 것이다.

이번 국경절 연휴에는 주삼각(珠三角) 지역의 교통 혼잡이 가장 심각할 전망이다. 그 뒤로 장삼각(长三角), 징진지(京津冀), 청두와 충칭을 잇는 청위지역(成渝地区) 순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도시 별로는 베이징, 허베이성,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산둥성, 허난성, 광둥성, 쓰촨성, 산시성(陕西) 등이 집중적으로 밀린다.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2019년 국경절 연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맑거나 구름이 많은 날씨일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적인 기상 조건은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로 서북, 화북, 쓰촨분지 등에만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언제나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좋은 사람들의 행복한 만남이 있는 곳.

“새로운 환경, 새로운 모습으로 더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1호점 **렌양광장 직영점**
上海市浦东新区芳甸路300号 联洋广场A区4楼炉边情谈
021 5033 7255 / 6163 3665

2호점 **정다광장 직영점**
上海市浦东新区陆家嘴西路168号 正大广场8楼炉边情谈
021 5042 7897

3호점 **용화중로 직영점**
上海市徐汇区东安路562号 绿地缤纷城2层月牙街WE-204
021 3363 3253